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없습니다. 토요새벽기도는 있습니다.
- **선교부:** 2018 단기선교(2/19(월)—23(금), 혼두라스 라스플로레스 최문재 선교사)
 - 선교팀원: 이민영, 김동수, 김중환, 김현정, 박인주, 서영수, 서현숙, 석동훈, 신미라, 이승택, 이영순, 최정민, 한주루, Edwin 김, 기다엘, 기유빈, 나유빈, Eunice 안, Chris 안, Cameron Warner
 - 기도제목:
 1. 모우아까 (Moacca) 마을을 방문, 기도, 진료, 사역으로 섬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도록
 2. 모우아까 주민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3. 최문재 선교사님과 세광교회가 서로 도전과 격려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4. 팀원들을 위해: 한 마음 되도록; 건강과 안전; 새 힘과 비전
- **교육부:** Sight and Sound 성극 "Jesus" 관람
 - 일정: 3/31(토) 오전 11시 공연. 아침 6시 교회 출발합니다.
 - 공연과 식사를 패키지로 예매하려고 합니다. 친교실에 Sign-Up 표에 가격과 식당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원하시는 식당 옆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 운전해주실 분 자원 받습니다. (가스비와 톨비 제공)
- **교우동정:**
 - 홍승룡 집사 가정 개업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Bagel & Bakery New York
157-08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시 1층 예배실(유년부) / 2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오후 8시 1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2018년 2월 안내: 전영자 권사
 다음 주 기도: 이영중 집사 (시 22:23-31)
 이번 주 친교: 서현숙 권사 / 황인선 사모
 다음 주 친교: 최경자 집사 / 백희진 집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New York

담임목사: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 **이영미**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교사에배

<오전10시> **PRESDAY PRESDAY** 인도자: **Edwin Kim** 전도사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 강승연 자매

봉헌찬송 ----- “좋은신 하나님” -----다함께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요 6:26-35; 47-58** -----인도자

설교(Sermon)----- “**풍성한 생명 (3): 양식**” ----- 이민영 목사

주기도문(The Lord's Prayer) -----다함께

주일에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 입례찬송 (Opening Hymn) ----- 8장 (통9장) 1절 -----다함께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다함께

* 신앙고백(The Apostles' Creed) -----다함께

* 찬송(Hymn) ----- 526장 (통316장) “목마른 자들아”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 시편 25:1-10 ----- 윤정호 집사

찬양(Choir) ----- “모두 기뻐해, 모두 감사해” -----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요 6:26-35; 47-58** -----인도자

설교(Sermon)----- “**풍성한 생명 (3): 양식**” ----- 이민영 목사

* 찬송(Hymn) ----- 540장 (통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 이민영 목사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훈두라스)

지난 주 주일 설교 요약

풍성한 생명(2): 여정 (요5:1-18)

명절이고 안식일이라 성전에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전 밖 베데스다 못가에는 온갖 병자들이 흑시 물의 힘으로 병이 나을까하여 많이 앉아있었습니다. 이들에게로 예수님의 발길이 향했습니다. 특히 38년된 병자 -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안식하기 전까지 광야에서 헤맨 시간과 동일합니다 - 를 주목하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병이 이미 오랜 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이미 자기 힘으로는 나을 수 없고 나를 소망도 갖기 어려운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진정 이 사람이 낫기 원하시는 소망이 없었다면, 낫게 할 능력이 없는 물음이었다면, 그를 위해 십자가 고통을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헛된 희망으로 괴롭히는 질문이었을 겁니다. 과연 이 병자도 감히 낫기 원한다고 말을 못하고 낫지 못하는 이유를 원망만 합니다.

그런데 일어나 걸으라고 하십니다. 38년 질병과 절망의 상징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이 없던 자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사 35:1-6). 성전 밖에 소외된 사람이 38년만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율법이나 지키며 우리끼리 안식의 모양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안식을 갈망하는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유대인들께겐 이 사람이 안식일에 동참하게 된 은혜와 기쁨은 보이지 않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불법이란 것만 보였습니다. 날이 이미 밝았는데 골방에 웅크리고 모여앉아 촛불을 꺼뜨리면 안된다고 노심초사하는 꼴입니다.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난 예수께서 "더 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의 질병과 죄가 연관이 있습니다. 5장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그 연관은 개인적인 책임을 넘어서 범죄함과 사망과 고통의 근본적인 연관까지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난 것처럼, 장차 모든 죽은 자들이 인자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납니다(5:28-29). "더 큰 일"이란 더 심한 질병을 넘어서 이 마지막 때의 영원하고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은 부활의 날에 참된 안식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알고 오늘 의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일어날 소망이 없는 자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듣고 일어난 것이 예수 믿은 우리입니다. 마지막 날 모든 잠자던 자들에게 "일어나라"고 하실 음성을 믿는 자는 먼저 들은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일어섰으면 그 음성을 따라 죄를 버리고 걸어가야 합니다. 선행으로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신 구원의 길을 걷는 겁니다. 위로부터 태어난 생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완성은, 참된 안식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여정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선 천지 창조를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며 완전한 속죄와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완성은 주님께서 지금 일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다 이를 약속과 작정을 하셨기에 완성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일하십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은, 우리 생명의 풍성함은 오늘 주님과 함께 순종하고 사랑하며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완성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완전하게 주신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며, 완전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과 섬김으로 온전케 된다고 합니다.

안식의 땅을 약속 받고도, 홍해를 지나고 매일 신령한 만나와 물을 먹고도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과 처럼 되지 맙시다. 그 약속과 구원의 은혜에 우리 믿음을 합하여 주님을 따라 순종하고 사랑하며 걸어갑시다.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안식은 완성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오늘 우리의 삶은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이미 안식입니다.